

눈물의 이유의 하나님의 언약 -예레미야-

예레미야 29:1-14, 야고보서 4:5-10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교회로,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게 하고, 지역 사회와 나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절대 목표를 향하여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믿음, 환경,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오직 말씀, 오직 복음만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이해되고 결단으로 내려지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고, 강단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눈물의 이유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한다. 야고보서 4:9-10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했다. 어릴 때 부흥회를 생각해 보면,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것 같다. 항상 기뻐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 가정 가문, 나라와 민족, 시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평화롭게 묵상하고 호흡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목이 쉬도록 통회하는 기도도 꼭 필요하다. 이것이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 정말 이 시대에는 울어야 할 일이 많다.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을 했을 때 어떤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주로 예레미야서 하면 33:1-3만 알지, 그 깊은 것을 잘 모른다. 예레미야서가 52장이나 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예레미야서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역사, 교회사와 세계사에서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5명의 왕을 섬기면서, 또 큰 나라-에굽, 아수르, 바벨론-들이 패권 다툼을 하는 시대에, 그 사이에 끼어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사역을 했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메시지는 없으며, 제사장, 선지자들은 꿈을 꾸고 귀신의 음성을 들었다. 온 백성은 타락하고 거짓말을 하며 자기 이권만 쫓아다녔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혼자 남은 것이다. 외롭게 혼자 남은 예레미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 뿐이었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우는 것 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너무 섭섭했었다. 그러나 그 환경,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대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셨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의 응답을 받았는데, 후대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BC 605년이었다. 바벨론과 에굽이 근동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에굽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다. 에굽이 유다 나라를 복속시킨 것이다. 이렇게 된 에굽은 자신감을 가지고 바벨론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다. 이것이 BC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에굽은, 그 이후 국가 전체가 역사 박물관으로 변해 버렸다. 모든 패권을 상실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 전쟁 이후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1차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끌려간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었다. 1차 포로기에는 주로 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장관, 군인 같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았다. 능력있는 사람을 끌고 가서 바벨론 나라의 발전도 도모하고, 동시에 인질 역할을 하게 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성령인도를 받지 못했던 유다의 왕들은 계속 바벨론에 대하여 저항하다가 멸망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의 내용이다. 나라가 망하고 성읍은 황폐해졌으며 성전은 무너졌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칼로 죽고, 자신은 눈이 뻘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예언한 것이다.

1. 예레미야가 울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는 이유가 많이 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연약하고 여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있다.

(1) 첫째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이다. 렘1:6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나이도 어리고 말주변도 없었으며 용기도 없었다. 대중 앞에 설 만한 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악한 시대에 이렇게 부족하고 여린 사람이, 성격도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대중 앞에서 예언 활동을 하겠는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안 부르셨느냐가 중요하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족함을 채우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고난 속에서 배웠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것이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갖기를 축원한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빼앗아가신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교만을 없애야 한다. 왜 일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렘29:11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닌데 왜 자꾸 재앙이 오는가? 하나님 떠나면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 있다. 물고기는 산 속의 맑은 곳에 데려다놓으면 살 수 없다. 새는 물 속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그때 재앙이 물러가고 참된 행복, 기쁨이 찾아온다. 이 원리를 놓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란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이 겸손한 예레미야 뿐이었다. 하나님이 불드시고 소명을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렘넌트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설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그곳에 서게 하실 것이다.

(2)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너무 섭섭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칼로 치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간하셨다고까지 표현한 신학자도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고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라가 망하게 하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렘4:10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 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같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전쟁이고 재앙이고 포로생활이었던 것이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있는 사업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갈등이고, 교회 오면 더 스트레스가 됩니다. 뭐가 이렇게 시키는 게 많습니까. 안 하면 미안하고 하면 힘드네 어찌 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다.

(3) 세 번째 이유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복음이 실종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며, 불의가 가득했던 시대였다.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누린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 시대마다 이런 선지자, 일꾼이 많았는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기 혼자 뿐이었다. 너무 외로운 것이다. 예레미야는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다 아니라고 말했다.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점을 치면서,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예레미야는 너무 외로운 상황이었다. 과연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 렘5:1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시대에 올바른 정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올바른 경제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올바른 목사, 중직자,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복음 가진 의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4) 네 번째 이유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방해하고 꾀박했을 뿐 아니라,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 꾸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세상 이야기, 점치는 이야기는 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다. 이런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한 가

지 일은 우는 것 뿐이었다. 울어라. 계속 울다보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짜증나고 신경질나서 울더라도 결국에는 기도가 나올 것이다. 상황은 전혀 안 변했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울게 되니까 참 평안이 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응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두고 우시기 바란다. 울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이다.”

(5)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징벌을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힘들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참을 만하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죄악사실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 9:8에, 거짓이 사회에 만연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권이고 이기심이었다. 거짓이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다. 영적인 상태가 그런 바탕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악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온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악이 나와서 온 백성에게 퍼져 버렸다. 근래에 자녀를 죽인 일이 많은데, 가장 악하게 죽인 사람이 목사였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래서 목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웃음) 모든 악이 목사들에게서 나온다. 시간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어쩌면 그렇게 악한 것을 잘 생각하는지 모른다. 악이 목사들에게서 나와서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지도자 때문에 상처를 입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기 바란다. 자녀들이 상처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것 때문이다. 청소년의 문제는 100% 부모 문제다. 부모님에게서 악이 나와서 청소년을 죽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유대의 왕과 지도자 뿐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5:6에는, 하나님도 유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치셨다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여러분도 목회자들을 지치게 하지 않는가. 훈련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집중훈련 그렇게 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공예배도 빠지고, 성경도 죽어도 안 읽고, 정말 목회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우시기 바란다. 변하지 않는 생각, 뿌리,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누리고, 정서기도 하다가, 자신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란다.

2.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언약과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1) 징벌과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다. 더 큰 어려움을 받아도 온전히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란다. 문제가 와도 속지 않고, 마귀가 여러분을 포기할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란다. 야고보서 4:7에,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버려 버리면, 마귀는 낙심해서 가 버린다. 시험에 걸어서 넘어뜨릴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떤가. 시험 오면 낙심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 말 조금만 잘못 들어도 상처받으려고 한다. 마귀를 절망시킬 준비를 해라.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없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수용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주신 것이다. 이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구약성경의 말씀이 전부 정리되게 되었다. 말씀이 없던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비로소 말씀이 살 길임을 알고 회당에서, 그발강가에서 말씀을 정리한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정리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그래서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을 고난 중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란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온전해진다.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2) 그들이 말씀과 언약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과 축복이다. 재앙과 저주가 아니다.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나라에 찾아온 어려움을 통해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야 한다.

(3)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렘33:3이다.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문제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안 부르짖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다. 울어라. 무릎 꿇어라.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업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응답을 위해, 직장을 위해, 결혼을 위해, 전문성을 위해, 현장을 위해 무릎 꿇고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물어 보라. 하나님은 참 행복을 거기에 주시게 되어 있다.

(4)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다섯 가지인 그리스도시다. 인간이 하나님 떠남의 문제, 죄 문제, 지옥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23:5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목자시며, 렘2:13 생명의 근원이다. 렘33:6 치료자이시고, 렘23:1-6 통치자이시다. 렘31:31-34에는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시다. 렘29:11 평안과 소망의 그리스도시요, 렘31:3 사랑의 그리스도시다. 렘50:34에는 구속자시다. 그리고 렘30:9에서는 다윗과 같은 왕이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뿐이다. 개인이 행복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가정 문제, 학교 문제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길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현장을 살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3.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고, 기도제목을 정리해야 되겠다.

(1)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는데,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치인, 정부가 국가의 장애물이 되고,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3) 경제가 참 어렵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다. 결혼을 못 하고 있다.
(4)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와 있다. 저출산이 엄청난 재앙이다. 아이 하나가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급박하고 긴박한 위기를 만나고 있다. 자녀들을 적게 낳으니까 선생님을 적게 뽑게 된다. 대학이 앞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점점 어려워진다.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중독, 자살, 도박이 늘고 있다. 희망이 없으니까 도박을 하고 복권을 한다. 동성애가 늘어나고, 가정이라는 행복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업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다. 취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똑같은 경쟁 속에 놓여 있다.

(5) 다문화 문제, 탈북자 문제가 있다.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범죄자가 되고 있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온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

(6) 성도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7) 경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삶을 즐기고 놀러다니느라 헌신하지 않는다.

돈 있는 사람은 놀러다니느라 기도하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버느라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 정치, 경제,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레미야처럼 부르짖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울고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는 전쟁을 막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여러분, 전쟁 무기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실 것이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위기 시대를 막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같은 후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 램넌트들이 세상에서 놀러다니고 타락하고 세상을 즐기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램넌트, 청년들이 더 울어야 한다.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민족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살리도록, 그 일에 내가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